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찬양감동 찬송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중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침례교 총연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장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영수

2001년 특별 금요집회
성경에 나타난 '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신 축복의 잔을 마시고 있는 우리들은 혹시 진노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있지는 않지요?"

지난 금요일 특별 금요집회(27일)가 있었던 본당에서는 이종 장로들의 확신에 찬 음성이 울려 퍼졌다. '잔'이라는 주제의 이번 집회는 '성찬', '창물', '손'에 이은 네 번째 시간이었다. "성경은 '잔'이라는 도구를 소재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서론에 이어 '거룩한 잔'(손실 장로), '방탕의 잔'(황영인 장로), '진노의 잔'(이갑재 장로), '고난의 잔'(이정우 장로), '회개'의 잔'(이종삼 장로), '구원의 잔'(진홍용 장로)의 발표가 이어졌고, '은혜의 잔'(김단용 장로)에 이르러 결문 맺어졌다.

이날 참석한 모든 중현의 성도들은 '잔'을 통해 하나

님의 구속사역의 은혜 속에 함께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드렸다. 또한, '축복의 잔'과 '진노의 잔'이라는 두 가지 잔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축복의 잔'임을 결단하고 헌신적 한 이번 말씀의 잔치는 '심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다'라는 마지막 찬송(찬367장)을 통해 온 성도가 한 몸 됨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다.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살펴보는 특별집회는 '연약', '웃', '나팔'로 계속 이어진다.

지난 수요일에 대해서

본이 되신 예수 (벧전 2:21~25)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자신이 세운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벧전 1:1). 그들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박을 당하고 있었다. 만약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합치려고 했다면 이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사단 수레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특별히 구분된 '홀려진 나그네'됨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런 일이 못할 때에 쫓긴 너희 사육을 본 삼지(벧전 1:14).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벧전 1:15).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은총사역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벧전 2:9)이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벧전 3:9) 복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러한 부르심에 앞서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일에 깨우도 없음'(벧전 2:2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고로를 받으시'고 이 일을 열지 아니하였기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사 53:7)였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때의 베드로는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는 겐세마네에서 잠을 자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원했으며, 세상과 타협하여 예수를 부인했던 자였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이사야서의 배경을 이해한 베드로는 이제 '너희 나루에 달려 그 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대하여 고하고 우리에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체재에 감동으로 내리는 이름을 얻었(벧전 2:24)라고 말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세상의 것을 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게 될 것이다. 살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뿐이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복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벧전 3:18).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벧전 3:22). 예수님께서는 고난 만이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처럼 본을 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파우뮴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을 오래하지 않으며,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이 목자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 2:25). 이제 우리를 부르고자 우리를 보내신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흠과 악을 지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비함으로 하며 때를 다하여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줄거늘 뜻으로 하며'(벧전 5:2).

나 자신을 부인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나의 뜻으로 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속이는 것, 쓰러지는 것뿐이다. 충현의 성도들이 평양에 관한 120여년 명의 이사를했다(벧전 1:14)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목자에게 들이매 사들이는 영명의 면류관을 얻(벧전 5:4)을 것이다. 따라서 믿음을 단단하는 성화의 방편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열 열 하나인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벧전 4:13,14).

금주 여름 사역 안내

해의 단기선교

인도 7월30일-8월11일
최영환 장로, 송길환 목사 외 12명
몽골 7월30일-8월9일
이종삼 장로, 김병태 목사 외 15명

여름 농촌 전도

11교구 8월1일-3일 충주 새충주교회
청년1부 7월30일-8월2일 영월 천국교회와 용성교회
청년2부 7월30일-8월2일 경주 동방교회
7월31일-8월3일 정선 도전교회

여름 성경학교

소년부 7월30일-31일 충현기도원
장학회 8월2일-3일 충현기도원

제명·출교란 무엇인가
교회 회원 및 직분의 박탈,
성도간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

교회는 교회의 외적 정교로 정당한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과 함께 권징을 행하고 있다. 교회는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징을 행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란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령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당회가 정하는 책벌에는 권제, 견제, 징계, 면직, 수간징제, 제명, 출교가 있는데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는 중징제인 것이다. (헌법, 권징조례, 제 2, 3, 35조)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IV 장 제8장 제4조, VI 권징조 제5장 제35조, VII 예배모범 제16장 시비에 의하면 제명이나 교회의 회원됨과 직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더 이상 교회의 회원이 아니며 어디가 서든지 제명 당하기 이전의 직분으로 복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출교는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성도 상호의 교제가 단절됨을 뜻한다. (마 18:15-17, 고전 5:1)

교회는 2000년 1월 17일 새벽의 당회장 테러 사건과 이와 연관된 일련의 일들로 골짜기 회개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에 대한 제명 출교를 단행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9일 이동명, 김수자, 김규중 안수집사 등 5인에 대해서도 제명·출교를 실시했다.

이제 이들을 출교하고 회원으로 인정치 않음으로 교회가 이들의 출석을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명·출교된 자들은 이제 충현교회의 교인이 아니므로 스스로 근신하고 회개의 충임을 삼가야 할 것이고, 은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그들과의 공적인 면에서는 개인적인 면에서의 교제를 금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 제명·출교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마음으로 그 교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회개의 심정이 생기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정한 법인 것이다.

Life or Wealth

(Luke 12:13-21)

“Bew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not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does his life consist of his possessions.”

In today's Bible passage, Jesus is speaking in front of thousands of people. He is preaching the Gospel and explaining to the multitude the secrets of heaven.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tell my brother to divide the family inheritance with me” (v. 13). This person regarded Jesus as a teacher or rabbi. He only respected Jesus as rabbi to balance the division of his inheritance. He wanted to use Jesus as a judge or arbitrator for his own benefit. Often times we do the same thing. We respect Jesus and His teachings, but only in so far as they address our worldly needs. Jesus refused to assume the position of judge in this secular matter. He said, “Man, who appointed Me a judge or arbitrator over you?” (v. 14) And then, He told a parable. This parable not only applied to the man and his situation but to everyone present because it contained universally important meaning. It talks about greed and life. Before Jesus even started the story, He gave its conclusion, “Bew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not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does his life consist of his possessions” (v. 15). His focus is not about wealth but concerns the attitude of possession. The imperative is for us to get rid of our greed.

Many people sitting in this church today may understand that greed is a sin and that Christians shouldn't be greedy. But few people know that getting rid of greed is something no man can do. That's right, it's impossible for any human being living in this world to free themselves from covetousness. Greed is a part of our sinful nature that can only chang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Only Jesus can free us from greed. As Christians, Jesus wants us to be on the look out for “every form of greed”. Why? Because greed is tricky and deceitful. It lures in dark places and sneaks up on you in little ways. It is one of Satan's primary tools of temptation. Greed is a dangerous element that constantly surrounds us. We must be very cautious with our disposition and attitude towards wealth.

Jesus' story is about a rich man and his productive land. The man obviously had many years of good fortune. The story quickly shows us the man's attitude toward his holdings, “And he began reasoning to himself, saying, ‘What shall I do, since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Then he said, ‘This is what I w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vv. 17-19). Notice how many times he says the word “I”. Everything is “I” and “my”. This man

reasons by thinking “I will”. His heart believes that his possessions are his own, even his soul. He is proud. Observe that everything he wants to do is for himself. It is all for his benefit, enjoyment, and fame. There's no talk about sharing. He only mentions personal objectives. There's no responsibilities for others. He thinks and acts upon greed.

Actually, everything this man possessed came from God but greed made him think that it was his own. Jesus tells us,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now who will own what you have prepared” (v. 20)? God was to call this man's soul that very night! Just stop for a moment and think about your life. Do you realize how short your time is here on earth? With God eternal, a thousand years is like one second (see Ps. 90). This rich man's life was like a vapor. Even though he prepared for the future, he couldn't take one single good thing with him. Do you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is truth? Who in this world can answer God's question?

My friends, you have to give up in order to get up. You have to let go of this world and your mortal life in order to receive heaven and eternal life. “Therefore consider the members of your earthly body as dead to immorality, impurity, passion, evil desire, and greed, which amounts to idolatry” (Col. 3:5). Idolatry is the adoration/worship of anything or anyone other than God. Christians have to put to death the things that take them away from God. Our world is filled with false people who will try and malign God's truth with sensuality, “and in their greed they will exploit you with false words; their judgment from long ago is not idle, and their destruction is not asleep” (2 Pet. 2:3). Their characteristics include, “having eyes full of adultery that never cease from sin, enticing unstable souls, having a heart trained in greed, accused children” (2 Pet. 2:14). whatever you don't give up becomes your idolatry. Think seriously about this truth. For there's nothing here on earth worth losing your soul over. Everything we experience now is temporary and passing. It can be counted as total garbage in comparison to eternal life in heaven.

Do you have any material wealth? It gives you opportunity. Are you using it for yourself or for the glory of God? Jesus never cursed the material. It's only your attitude and how you use God's wealth that determines whether or not you will be cursed. If you make wealth your own treasure you will never be rich toward God (v. 21). In other words, if you have treasure for yourself that's greed, sin. Watch yourself with whatever material God has given you!

Often times you think you don't have anything. God has already given to you everything you need but you have greed. You never appreciate His awesome blessings. Look at Jesus. Did He have anything? Only His body and blood and He gave that away. Look at John the Baptist. Did he have lots of money and clothes? No, he had nothing. Look at Paul and Peter and how they gave away whatever they had. They shared their knowledge, faith, and spiritual life. They didn't use these things for their own benefit but for the benefit of others. Stop and think a moment. Did you ever give anything to God? Or do you always look at things as your own, like your home, car, children, education, and job? How is your attitude toward poor people? How is your attitude toward giving away material things? Jesus said, “Take it,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He gave everything.

My dear friend, do you think about your life or do you focus on your wealth? “The fool has said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Ps. 14:1). That's why he acts greedily. Without God and wisdom people always destroy self because they live self-centeredly. Self-centered living destroys the self with God's material things. Make your praises to God and make Him happy. If you lay up treasure for yourself that's not treasure to God. The best thing to have is richness toward God. Please don't work for material things like money. Work for God's glory. “When you reap your harvest in your field and have forgotten a sheaf in the field, you shall not go back to get it; it shall be for the alien, for the orphan, and for the widow, in order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When you beat your olive tree, you shall not go over the boughs again; it shall be for the alien, for the orphan, and for the widow. When you gather the grapes of your vineyard, you shall not go over it again; it shall be for the alien, for the orphan, and for the widow. You shall remember that you were a slave in the land of Egypt; therefore I am commanding you to do this thing” (Dt. 24:19-22). How rich toward God we become when we practice such charity and live our lives for His glory.

So, my friend, you have eternal life through the blood of Jesus. Do you know how much he paid? We call it redemption. God gave you material for His glory. Why are you greedy? Why do you store the things He has given you for yourselves and not Him? Use God's material for life, not personal gain. Please don't make material things your God. Appreciate what you have and use it for His glory. Jesus didn't have anything but He gave everything. His sacrifice saved the whole world. Amen. 



김성관 목사

예수에 대한 오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말했습니니다. “선생님, 네 행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13절). 이 사람은 예수를 어떤 선생 또는 랍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오직 그의 제자를 공평하게 나누어 줄 랍비로서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를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이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단지 우리의 세속적 필요에 연결되는 부분에서만 인정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속적 문제를 다루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14절)라고 대답하신 후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그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과 생명이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선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15절). 그분의 조짐은 부유함 자체가 아니라 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탐심에 대한 이해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탐심이 죄라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탐욕은 우리의 죄성의 일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바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탐심’을 경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파적 탐심은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으로 유혹하며, 여러분에게 조금씩 살금살금 기여웁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유혹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늘들려내고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부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오해

예수의 이야기는 한 부자와 그의 필요로 땅에 대한 것입니다. 확실히 그 부자는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니다. 이야기는 부자가 자신의 소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 주는지 말해줍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복을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되 영혼이 어찌 해 줄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17-19절).” 여기서 부자가 “내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주목하십시오. 모든 것은 그저 “내가” “내가” “내가”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마음은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마저도 자기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고만하습니니다. 그가 행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명예를 위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눔’이란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개인적인 목적인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의무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탐심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오해

사실 그 소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부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면 네 배비 없는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20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부르려 하셨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은사는 천년하 한 순간 같습니다(시 90편 참고). 이 부자의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았습니다. 비록 그는 멋진 미래를 계획했지만, 분명히 그는 좋은 것만 가지고 가고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리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참된 삶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절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유산이니라”(골 3:5). 유산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어떤 사람이나 사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바 났고 살아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호적함으로 힘들어하는 거짓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삼가져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참으니 너희 심판은 단죄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너희 명은 자기 아니하니라”(베후 2:3). 그들은 ‘욕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온 세기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인 것입니다(베후 2:14). 무엇 이든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유산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 실망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든 여러분의 영혼을 주실 수 있다면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한 순간의 것이며 속히 지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모두가 소망과 같은 것들일 뿐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해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재물 재물을 결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여러분의 태도,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느냐의 여부가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을 관가질할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아닙니다(21절). 다시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탐욕이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 조심하십시오. 많은 경우 여러분은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

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주께서 가지신 것은 오직 몸과 피만이었습니니다. 그나마 그것도 포기하셨습니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많은 돈과 옷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포기했는 지 보십시오. 그들은 저서와 믿음과 영적 생활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 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 자동차, 아이들, 교육, 직장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자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취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몸이니라.”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참된 부유함에 대한 이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물에 관심을 두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나 없다 하도다”(시 14:1).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탐욕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십시오. 만약 재물을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보물이 아닙니다. 최고의 재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돈과 같은 물질적 재물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내가 밤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쟁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법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간담나무를 댈 후에 그 가지들을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쟁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따 후에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쟁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시 24:12-22).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하며 우리의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보혈을 통한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위해 열마를 지불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탐심을 갖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재물을 개인적인 이익에 사용하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쓰십시오. 물질은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예수께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희생은 온 세상을 구했습니다. 아멘. ■

단기선교 기도제목

아프리카 R국 (7월23일~8월3일)

1. 김철민과 지병호 지도 목사를 중심으로 팀원이 하나에서 단결된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도록
2.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3. 선교사들에게 사랑과 힘이 되는 단기 사역이 되도록
4. 방문하는 교회의 집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5. 생방송 지역을 담담히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도록
6. R국 현지 7교회와 아랍어 학교, 000성경학교, 컴퓨터 학교가 지역을 통해 효과적인 복음증거가 이루어지도록
7. 000성경학교를 통해, 잘 준비되고 훈련된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8.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9. 기부와 음식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0. 선교여행을 통해 선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몰디바 (7월23일~8월6일)

1. 모스크에서 일국지자 발급을 순조로이 받을 수 있도록
2. 선교여행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영령의 하나됨을 위해
3. 몰디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국경 통과시 어려움이 없도록
4. 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5. 우크라이나와의 정치적 혼란으로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6. 파산장지대에 복음증거가 이루어지도록
7. 사역지 지역 중에 안전을 위해서
8. 외선부 형제 가족들이 생방송 중에 외로움을 받도록
9. 현지에서 통역, 숙식이 잘 해결되도록

우즈베크 카자흐 (7월24일~8월6일)

1.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역이 되도록
2. 인도하서는 전홍철 장로님과 서광진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팀원들 주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3. 조별 사역 중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잘 곳과 만민 사람들이 예비 되도록
4. 생방송 지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그곳의 가족들이 위로 받을 수 있도록
5. 사마리칸트의 아잠, 칠켄트의 올라, 샤사 집안이 복음화 되도록
6. 국경을 넘는 일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안전한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지고 당하지 않도록
7. 이 사역을 통해 중현교회 중앙아시아 선교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8. 우즈베크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마리칸트와 칠켄트
9. 우즈베크의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몽골 (7월30일~8월9일)

1.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2.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맺히길 기도합니다
3. 견결함과 능력이요 말씀과 기도를 외지하기를 기도합니다
4.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5. 팀의 하나됨과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6. 단장님, 목사님에게 특히 영적인 분별력과 지도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7. 팀원 개개인마다 선교와 몽골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소서

8. 언어습득에 실수를 두려워 없기를 기도합니다
9. 통역하는 숫다 자매에게 은혜를 주소서
10. 지도부는 복음으로 하나 되고 팀원들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11. 자카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드러내도록
12. 인술의 열매로 주의 향기를 발하기를
13. 주 예수의 복음을 깨닫도록
14. 보다, 숫다 가족자역인 비호비나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15. 보다, 숫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16. 바이비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17. 낙두르토 호를를, 지역 복음화를 위해
18. 나산 가정 복음화를 위해
19. 중현교회 선교지가 확고히 서도록

인도 (7월30일~8월11일)

1. 대원들 모두 성령으로 하나되고 스스로를 살릴 수 있도록
2.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식지 않도록
3.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4. 준비된 영혼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5. 외선부 가족 생방송을 통해 그 가정의 변화될 수 있도록
6. 현지 교회 사역과 아랍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7. 대개 노동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8. 우라지 노동력을 현지인의 손길을 위해서
9. 영의 눈으로 정량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10. 현지 이혼수단과 안전을 위해서
11. 앞에서 인도하서는 단장 장로님과 지도 목사님을 위해서 -단장 최원환 장로 -지도 오성환 목사
12. 인도 사역 속 귀한 체험과 간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방전도의 주체자 - 성령, 중언

오직 성령에 의해 성취하는 교회

누가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언급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목적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눅4:18),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과(눅11:13), 성령께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실 것(눅12:12), 그리고 부활 후 성령하시면서 '위로부터 임하게 될 능력'을 기다릴 것을 명명하셨다고 기록하였다(눅24:46-47, 49). 이렇게 누가는 복음서 속에서 성령에 대해 17번을 언급함으로써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첫 번째 글인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초점을 맞추었고, 두 번째 글인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을 통해 유대와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활동'에 관해 집중하였다. 그리고 누가는 성령에 대한 관심을 사도행전에서 '기다림'으로 시각하고 있다. 해 바울은 일과 하신 많은 증거로 친히 사함을 나타내신 예수는 사심 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행1:3). 그리고 나서 사도와 같이 모이셨고, 저에게 예수상해를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이방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행1:4). 즉, 성령에 의해 이끌릴 받을 것을 당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강림에 대해 분명히 약속하셨으며(행1:5), 이 강림을 향한 성령을 '오직 성령의 능력'에 두셨고(행1:8), 이렇게 교회에게 힘을 주고 교회를 감독한 성령은 놀랍도록 '예수의 영'이었다(행16:7).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듯, 교회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성령의 사역은 누가복음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누가는 처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선교를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언들에 의한 확증되는 교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중언'이라는 말을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행3:15, 5:32, 10:39, 10:41, 13:31, 22:15, 22:20, 26:16).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단어로써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중언'들에 의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는 선교적 명령의 요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8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중언' 뒤에 두고 있는데, 이 중언이라는 개념 역시 누가복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누가는 중언이란 단어를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는데, 사도행전 1:2에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자가 되고 일꾼 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낸다. 이들은 사도행전 8:4에서 "홀어진 자들"로 나타나기도 하며, 중언으로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이들을 우리는 '중언'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중언' (μεσσης)이란 '예수께 관하여 보고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를 지칭해서 사용되는데,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에디오피아의 내로, 로마의 법정, 헬라의 철학자들, 소아시아의 시골 농부들 그리고 다른 대상을 그들 방식대로 전하며,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주진홍 편집)

2001 하계 단기선교 동행

아프리카R국 단기선교팀(단장 김철창장로, 지도 차병준 목사 외 3명과 몰디바 단기선교팀(지도 서광진 목사 외 9명)도 24일 출국하였다. 이들 단기선교팀은 14일 15일, 11월 12일, 13일 14일 동안 사역을 하고 8월6일, 3일, 6일에 돌아온다. 이번 단기선교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아프리카R국과 몰디바, 우즈베크스탄에 전해져 넘쳐나도록 중언의 온 성도가 기도로 동참하길 바란다. (각 나라 기도제목 참조)

고등부의 전도전략

조 옥 자 (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교회와 성도는 누구나 전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삽니다. 전도를 잘 못하는데서 오는 부담감과 죄책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고민이 그렇습니다. 고등부의 전도사역을 나눔으로 항상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고등부에서 비중을 두는 전도는 학교전도와 총동원전도주일입니다. 학교전도는 본교 고등부에서 출석하는 학생수가 다섯 명 이상인 학교에 모임을 결성하여 자발적인 모임과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학교별 모임을 '학교전도'라는 용어 대신에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어 섬기자'는 의미에서 'o o로움'라고 칭하며, 해당 학교의 학생 대표를 '전부장'이라고 칭합니다. 올해 활동하는 들로스는 교회주변 학교를 비롯하여 서울 시내와 경기도에 24개입니다. 들로스는 헌신된 전부장들의 인도로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모임 자체를 전도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모임이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라나 들로스 모임을 갖는 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들로스마다 지도교사가 배치된 것이 아니어서 전부장들의 고용이 쉽습니다. 비록 헌신된 전부장이라고 하여도 대입이라는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월 때면 1회 학교에 1인 고교 담 당이 현실로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교사수급에 어려움을 느낄 뎡 하나 학생을 가르쳐주면, 학교주변에 거주하는 주부가 일주일에 한번 들로스 모임에 참여하여 지도해 준다면 기도와 전도가 더욱 활성화되겠다는 꿈을 꿉습니다.

두 번째로 총동원전도주일 있습니다. 이것은 봄·가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고등부는 학생들이 평소 자신과 친한 사이지만 전도의 기회를 못 가졌던 불신자 친구들을 이때 초청합니다. 초청하기 전, 전도대상자들을 정하여 교사와 학생이 연애편으로 기도하며 학생들은 담임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을 교회에 초청합니다. 지난 5월 20일에 1차 총동원전도주일로 집중하였고, 이제 9월에 또 한 차례 전도주일을 가지려 합니다. 고등부가 전도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중언 중심의 전도와 교회 중심의 전도를 하고 있고 이 것들을 전도를 위한 큰 틀을 형성시켜 줄 뿐 실제로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성령의 역사로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중현 젊은이들의 여름 이야기

젊은이들의 계절인 여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며,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영적성숙을 위해 수련회와 농촌사역 등으로 잘 보내고 있는 중현 젊은이들의 여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름

박 병 일 (청년부, 73동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허락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무인지도 모른다. 올해도 변함없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평소 계절과 시간에 대한 생각이 무뎠던 하가 하루하루를 살아오다 문득 주님께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는 해외단기선교, 농어촌전도, 여름성경학교 등으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많이 볼 수 있다. 나는 이번 여름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삶이 아닌 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이번 여름에는 주님과 더 많은 교제 가운데 살도록 여름을 계획했다.

먼저 농어촌전도활동을 갈 계획이다. 전도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다. 나 자신이 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도구로써 쓰임받고 싶다.

둘째로 말씀생활에 대한 계획이다. 매일 말씀을 보고 성경통독을 하기로 연초에 계획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가끔씩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 기간 동안 회복하려고 한다. '내가 그를 목상함이 담글하리니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 하리다' (시 104:34). 이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늘 즐거워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Q.T.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하기로 작정한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매 시간마다 맡겨진 의무에 충실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책을 떼를 알고, 올바른 순서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낫다.

뜨거운 불에 쇠가 단련되듯이 이 여름에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전도, 말씀, 기도로 단련되어지기를 온전히 바란다. 또한 세웠던 계획들을 실천함으로 이번 여름기간 동안 주님의 깊은 교제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김 연 신 (대학부 3)



"매번 똑같은 수련회 아냐? 그리고 수련회 다녀와도 그 때문에 지 좀만 시간이지 나한테 예전처럼 똑같아질 것 아니겠어. 이번 수련회 별로 기대 안 해."

"수련회 가도 솔직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영혼이 더 답답해질 뿐이야.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조차 없어져 버린 나 자신 때문에 슬퍼."

수련회를 가기 전에 나를 참 힘 빠지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말이다. "매년 여름 겨울 수련회를 가지지만 그 시간들이 매번 똑같고 고루한 시간들이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은 관에 바친 분이 아니신데.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정말로 설레고 기대되고 신나는 시간들인데..." 내 속에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안타까워 하시며 지켜보신 신양적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 이제 그들의 그런 말을 듣고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계기로 수련회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학부 임원으로 수련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대학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던 좋겠다고 기도했다.

더디어 기다리던 수련회. 난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다른 대학부 회원들이 은혜 받고 불편함 없이 3와 4일의 수련회를 지낼 수 있도록 뛰어나야 했다. 설세 없이 지나가는 수련회의 일정들, 분주함의 연속. 그렇지만 참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로 부족한 임원들이지만 우리들 통해 일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수련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순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 정말로 감사

만평

글·그림 : 김 범 현

초등학교 시절,
용의경사 시간은 언제나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씻겨준 물은 죽구와 발구로
머리까지 있는 지 오래되었지요.
머러운 모습을 감추느라 애쓰는 모습은
정말 가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님은 오늘도 머러운 내를 감싸 안으실니다.

했던 수련회였다.

참 신기했던 것은 수련회 하루 일정을 마친 밤에는 항상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 하며 일정을 모두 걱정했었는데 다음날이 되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각 사람의 주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주관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을 일련된 모두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다.

수련회 기간 동안 그 마음으로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을 흘리며 우리 대학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다. 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들... 앞으로 남은 일기 동안에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무엇보다 대학부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열치열(以熱治熱)'

이 재 욱 (고동부)

무더운 여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늘어지고 방탕하게 지위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여름이라는 계절에 맞서기며 (?) 늘어지고 방탕하지는 않았습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곳을 찾아가고, 누구의 품에 안겨서 쉬위를 잊으려고 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주님께서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찾으며 울부짖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여름에

는 마치 연인들이 덥고 짜증이 나서 손을 잡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신앙도 같이 변하고 흔들린다면 이것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준비된 마음은 없고, 환경을 탓하며 주님 만나는 것을 빗전으로 미룬 적은 없습니까? 덥고 찢는 여름이라는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께서 좀더 가까이 그리고 따뜻하게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오면 그때 주님을 만나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워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의 평생을 다 거려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자리 잡지 못하던 저의 신앙을 찾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탓하며, 사람들을 보며 귀찮은

신앙을 지워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찾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눈을 흘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다 가슴 한편으로 신앙의 꿈을, 사역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熱)은 열로써 다스린다'라는 이열치열. 무더운 여름 때문에 흔들렸던, 혹은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활활 타오르는 신앙으로 맞서며 다스려야만 합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며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무더운 여름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있는 농어촌 전도와 여름수련회가 행사가 아닌 주님을 찾으며 활활 타오르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맡기는 그런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구역별

그의 능력

2교구 경복2구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그의 능력을 길이 느낄 수 있는 구역예배를 마음에 품고 약속 장소로 향하였다.

호흡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할 구원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선한 일을 해야 천국 들어가는 줄 아는 잘못된 인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초점을 맞출 줄 수 없다.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가려는 청년은 근심에 싸였다.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주를 찾고 쫓을 때 이를 수 있었던 구원을 버려두고 그 청년은 떠났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아야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으니 참 기쁨을 가져야겠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시험이 닥치자 자신이 감당하려고 할 때, 깨달음을 주사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을 확신할 때 평안을 주시는 응답을 감사한다. 하나님의 평강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하기에 이웃에게도 전해야 한다.

박권사님은 구역의 통성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셨다. 예수 믿지 않은 자가 교회 출석하던 일, 다시 신앙이 회복되던 일 등 이제까지 응답하심을 체험하면서 다른 구역에서도 기도의 모습이 더욱 뜨겁게 나타나길 바란다며 박권사님은 힘주어 말씀하셨다. 기자도 통성기도의 뜨거운 열을 느낄 수 있었다.

소망부의 김경재 성도님과 할아버지 두 분은 천지가 변해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자부(황집사)와 손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철저한 유교 사상을 갖고 계셨던 두 분의 마음을 모신 황집사는 필박과 환난 속에서 어른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화생하니 인정을 받게 되었고 절묘한 형사수도 교회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진정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었다. 성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케 했던 소금의 삶을 느껴본다. 처음 방문한 곳이었지만 하나님 구원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임통게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양성우♥엄선영' 부부를 소개합니다

결혼한 지 14개월된 신혼부부이다. 지방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직장이 서울로 오면서 논현동으로 이사오게 되었다. 교회 가까이 살게 되어 출현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새가족부 집회서 말씀을 정통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또한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위한 교재가 좋았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좋다. 새가족 환영 시간에는 쉼스런기도 했으나 소속감이 생기는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다 것 같다. 열심히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갖고 싶다. 기도해 주시기를...

'정규중' 성도를 소개합니다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18년 동안 봉직하고 있고 딸 2명을 두고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어머니님과 매형·누님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니려고 출현교회로 오게 됐다. 교육이 연령별로 있어서 다른 교회보다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지하고 많은 도움을 받는다. 새가족부 담당 교사께서 늘 기도하고 전화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고 감사하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 양요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5교구 한자경 성도(여63세) 혈소관 감소증(피가 마르는 병)으로 순천향 병원 839호에 입원해 있으며, 홀로 병상에 있습니다. 각별한 기도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10교구 이영일 안수집사(남62세) 당도합병증으로 발이 상하여 절단수술을 해야하는 곤경에 처해 있으며, 신장이식수술을 요하여 신장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17교구 이승기 성도(남40세) 지난 봄, 소방관으로서 화재사고 전압 시 부상을 입었으며, 뇌손상으로 국립 재활의료원 511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억력 회복과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로 점차 회복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병마와 투쟁중인 환우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출의 진술

찬송할 이유...

박 명 근 (집사, 13교구, 가브리엘산양대)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시리라. 아름다운 시로 찬양할지이다." (시 47:7)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찬송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찬송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천국 백성의 가장 진실된 표현이며 우리들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맺어지게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과거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며 찬송해야 하고, 현재 역사하시는 일로 인하여 찬송해야 하며, 성령이 있는 한 우리들은 앞으로도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나.

"지금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이다." (창 14:2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찬송의 대상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칭송과 감사이고, 우리의 뜻을 그분께 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빛과 아름다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찬송과 근심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찬송이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주실 것입니다. 찬송은 이 땅에서만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가장 가치있는 행위일 것입니다.

다음주일 찬송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는 퀴 밀러 여사에 의하여 작시되었고, 조지 베버리 위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쉬는 성공회 교회의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의 교회에서 매 주 성가를 불렀는데, 어느 주일 아침 그의 어머니가 애송하던 이 찬송가가 피아노 악보대 위에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이 찬송가를 작곡하였고 그날 아침 예배시에 이 곡을 부름으로써 많은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 후 이 찬송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적인 찬송가로 널리 애창되어지고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바랄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세상 행복이 아무리 좋아 보이든, 날 대신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엄청난 사랑을 여겨 잊을 수 있을까. 결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떨어지지 않으렵니다. 이미 나는 세상 즐거움과 자랑을 다 버렸습니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르는 방법 : 1. 길격적으로

2. 후렴에 두 번 있는 긴 간주(5박자) 중 3박은 점점 크게하고, 2박은 점점 작게하면 더 은혜로울 것 같다.



여름성경학교 그림일기



변 지현 (유년부 5학년)

나는 오늘 여름성경학교에 나갔다. 미시울림픽도 하고 금식도 하고 코너 학습방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 찬양도 공부해 왔다. 미시울림픽에서 나는 피구가 재미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목이 오는 것 같다. 앞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혁준 (유년부 6학년)

여름성경학교에 갔다. 거기서 재미있는 미시울림픽도 했다. 또 맛있는 저녁도 먹고 코너 학습방도 했다. 코너 학습방은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내가 제일 기억나는 것은 사랑의 방이다. 사랑의 방에서 전도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겨울성경학교 때도 나올 거다. 오늘은 즐거운 하루였다.



성경의 색

'예레미야(Jerem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③

예레미야서는 '마름'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신앙의 '내면'을 무척이나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을 외형적이거나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기간 동안에 두 차례 생전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평가할 때, 백성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지 못하고 외적인 개혁만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점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그의 유명한 성전 설교(7:1-10:25)라든가, 그가 선포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한층 쉬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예매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거룩한 상징인 연막제가 나중에 불로불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는데(3:17-18), 이것은 예매의 초점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본질적인 요소를 맞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신앙의 근거를 '마름'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예매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매에서도 참된 예매는 어떤 '정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명과 진정'이라는 '마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에서 떠난 의식을 고백할수록, 신앙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름'에서 기인된 경외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마름'으로 느끼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 '임박한 심판', '포로' '구명' 등등, 예레미야서는 죄로 인한 고통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악과 멸망으로 인한 그의 고통은 '슬픔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합니까(요 11:35, 골 1:9, 히 7-8, 사 53:3). 사실 그 까닭에 여러 사람들은 예매를 예레미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마 16:14). 그로써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전달되고 느끼지는 죄악은 지금 이 시대의 죄악이며, 그가 느꼈던 고통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느끼야 할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쏟아내는 죄악은 모든 시대마다 모든 곳에서 늘 존재하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곧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마땅히 함께 짊어져야 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예레미야의 고통과 무릅부, 이것은 진실로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고통이며 눈물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할만 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하며로다"(9:1)

"네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고통할 것이며 여호와와 양 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痛哭하리라"(13:17)

"나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으로 흘려나오는 하나님의 고통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14:17)

(김동하 목사·송관국 지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이 적은 시대에

박 경배 (소년부 교사)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세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라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순종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순종 때문에 건강할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일정한 영적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 안에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우리의 의무이기 이전에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기 때문에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많이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완전히 깨닫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이끌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비밀을 완전히 익힌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거듭 돌아간다. ~ 이들은 십자가의 못에 매달린 해묵은 기독교를 바르게 믿고 산 자들이다." - 로버트 메일이 백제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불순종은 죄입니다. 이 불순종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 아니라 교회 즉 영적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되는 마귀의 무기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홀드리는 자니라." (눅11:23) - 찬글링 james성경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은 적은 시대입니다. 또한 복음이 점점 흐려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나의 친구

이 신동 (소년부)

나는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다.

나와 제일 친한 그 친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 친구를 무척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교회에 대해서나 친구들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는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내 친구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주신다.

하지만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거의 안 들어주시는 나의 친구 예수님.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나의 친구 예수님이 참으로 좋고, 예수님이라는 친구가 있는 것에 대해 기쁘고 만족한다. 하지만 나는 다른 친구들도 참 많아 있다. 앞으로는 내 친구 예수님처럼 다른 친구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이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임 현 진 (초등부 교사)

봉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볼 수 있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라는 찬양이 생각나는 성경학교였다. 여러 모습으로 성경학교를 도우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이런 사랑을 먹으며 자라다면 분명히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은 오전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하는 우리를 위해 오후에는 햇빛을 주셔서 진행 순서가 막힘 없도록 도와주셨다. 이 순서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부흥회와 세족식(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을 본받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이다.

처음에는 순서지침을 보면서 "피마들이 과연 하루회 때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생각했다. 물론 이해하고 보면 뜻도 몸도 있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단말을 무릎에 대고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깨달을 수 있었다.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선생님들이 "기도제목이 뭐야?"하고 물으실 때 "할머니가 아프세요", "아빠가 교회 안 나가세요"라며 모든 것을 솔직히 대답해 주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선생님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이이교 예배'하는 장면이었을 것이다.

이들 동안 처리된 성경학교 기간 동안 하루밤에 월차를 내지 못해 다음날 출근하는데 "선생님, 사장님한테 못 나간다고 하세요"라며 불잡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무척이나 미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불잡을 때 뿌리치지 못하시고, 불잡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 여름순례회를 통해 여러가지들 은혜 중에 느끼고 잘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장로 월요새벽기도회
일시: 30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31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교구위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선교관 5층(당회실)
4. 전사 전체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칼릴리움
5. 권사 임원 전체 월례회
일시: 8월 1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남녀 전도회

1. 바울 3지회 월례회
일시: 31일(화) 18:30
장소: 동문 앞 노아식당
2. 베드로 2지회 월례회
일시: 8월 11일(토) 17:30
장소: 교육관 109호
3. 요한 5지회 월례회
일시: 8월 5일(다음주일) 15:00
장소: 교육관 201호
4. 요한 9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교육모임 후
장소: 본당2층 제2예배위원회실
5. 요한 10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교육모임 후
장소: 복지관 지하1층

주수변경

1. 이달목 집사
강남구 도곡동 869-13호 서린④ 1-708

별 세

1. 문봉녀 타고권사
(이영일 성도의 장모, 김영자 집사의
모친, 2교구 논현5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2. 이명진 성도
(이영자 집사 남편, 이병학 장로 조카,
7교구 하남구역) / 22일 별세, 24일 장
례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후 7:00	본당
	II 오후 9:00	본당
	III 오후 11:00	(신촌, 낙곡역동행복교회)
	IV 오후 1:00(다음주일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찬양대 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1.오전 11:00 2.오후 7:30	본당
금요일 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8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수요일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8	5	오정현	박영식	이정우	이종식	강도용	정창길	문병태
	12	손 철	이종식	김인관	윤성철	사동석	박국규	한정호
	19	임무현	정운석	박인진	이영희	안종욱	박광진	이근자
	26	김은호	김의철	이병욱	차신득	김종구	손철경로	이미애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7월(중·요일)
2. 대상기간: 2001년 1월~6월
3. 장 소: 전도위원회실(교육관1층)
4. 준비서류: 사신표 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통장, 사업계획 등

교정전도회 사무 모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출근에 있는 신촌정보통신학교(출근선년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교구로 봉사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교정전도회 사무실(내선207), 박달역 전도사

경향전도회 여성중앙단 찬양전도 사역자 모집

대상: 소프라노 2명, 메조소프라노 1명, 알토 1명
문의: 경향전도회 사무실
(이연실 집사 017-713-0501)

스리랑카기독교사모집

파송예정일: 2001년 8월말경
서류제출일: 오늘까지
희망자는 단기전도선 선교사 지원서(소정양식)를 선교위원회에서 받아 구비서류를 제출함
주요: 본교의 동쪽 세례교인으로서 정규 LMTC교육을 끝낸 자(김종욱LMTC는 자격이 되지 않음)
특히 어린이 사역에 경향이 있는 분은 선발된 단기전도사는 훈련 후 파송함.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19	최원도	1	바울	김봉수(12)	627	금경훈	1	청년2부	
620	유정선	19	청년1부		628	조선희	1	청년2부	
621	박윤일	17	한나		629	전병진	9	예배다부	이원식(3)
622	이강윤	19	청년1부		630	윤상현	9	예배다부	이원식(3)
623	이승덕	1	베드로	이건규(6)	631	박세강	17	청년1부	김혜수(17)
624	한동익	1	베드로	이승연(7)	632	이지현	19	대학부	임우도(16)
625	윤영섭	19	청년2부	방희룡(15)	633	문진성	9	대학부	
626	유정선	15	루디아		634	이지현	19	청년1부	김혜수(17)

* 찬송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증헌증보의창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② 김창민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불붙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헌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충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심 기 는 분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 | | | | | | |
|-------------------------------------|-------------------------------------|---|--------------------------------------|-------------------------------------|-------------------------------------|
| 조진근
기독교회
이병학
교구위원장
신교위원 | 김은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노정현
당회 서기
최대원
봉사위원
이 호
청년위원장 | 이종성
교구위원장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정원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동하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오진국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도용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오정현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영철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최두환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재명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남준우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정동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정문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종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종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재명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문용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조진태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종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종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종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종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김진태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창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차신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재명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재명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재명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박영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광남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종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윤성철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윤성철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윤성철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이하영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박인진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인관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병욱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병욱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병욱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안종욱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최명환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임무현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종섭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종섭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종섭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최기훈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경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전종훈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전종훈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전종훈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전종훈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이정우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단용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황영일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손 철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손 철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손 철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한승규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영수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정홍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환기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환기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환기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한승철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최준덕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계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황의만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황의만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황의만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김주형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재두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박용규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명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명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명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이대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최준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영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철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철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철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조종환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박준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영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철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철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철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박찬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최성현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 | |

■ 부목사

- | | | | | |
|------------------------------|-----------------------------|-----------------------------|-----------------------------|-----------------------------|
| 이종성
교구위원장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종대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정원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동하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차병준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김병태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서정철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정혜성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준경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박인기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이성기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류병태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노경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종철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정훈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이근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종성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송길환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수근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준기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안종덕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방준영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나광영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정진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용덕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이성호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고광환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신성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

■ 선교사

- | | | | |
|-----------------------------|-----------------------------|-----------------------------|-----------------------------|
| 정원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권영일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최은아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권요섭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이소영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추은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영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정현주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협력선교사

- | | |
|-----------------------------|-----------------------------|
| 이소영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정현주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 찬양감독

- | | |
|-----------------------------|-----------------------------|
| 김도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영기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 어전도사

- | | | | | |
|-----------------------------|-----------------------------|-----------------------------|-----------------------------|-----------------------------|
| 정원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정자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송창자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신동수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윤인숙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김득욱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한영준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연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홍은혜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이유주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김달자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안태순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최효식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백명자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정영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조옥자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강덕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김정선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장혜구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

■ 교정전도사

- | |
|-----------------------------|
| 박영덕
신교위원
신교위원
신교위원 |
|-----------------------------|